

# 제약업계 최장수 CEO 퇴임 3월 주총서 '수장교체' 예고

‘18년’ 삼진제약 이성우 사장 퇴임  
보령제약·동화약품도 최종결정

3월 제약사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기가 만료되는 제약업계 대표들의 재선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약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인 삼진제약 사장이 18년간 이어온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보령제약과 동화약품도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 이성우 사장은 오는 17일 임기가 만료되면 45년의 회사생활을 끝내고 퇴임한다. 1945년생인 이 사장은 올해 75세다. 이 사장은 지난 1974년 삼진제약에 입사한 후 2001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약 18년간 회사를 이끌어 왔다. 지난 2016년 여섯 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제약업계 최장수 CEO가 됐다.

차기 CEO에도 관심이 모인다. 삼진제약은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장홍순 부사장과 최용주 부사장을 각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

하며 공동대표 체제를 예고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갈 것인지는 이사회 결정이 끝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령제약도 오는 22일 주총을 열고 이삼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을 의결한다. 최태홍 사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되면서 보령제약은 지난 2월 이삼수 연구·생산 부문 대표를 후임자로 일찌감치 확정된 바 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보령제약은 안재현-이삼수 투톱 체제로 전환된다.

동화약품도 오는 2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박기환 전 베링거인겔하임 대표 선임을 마무리한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12월 선임된 이설 대표이사가 선임 1개월만은 지난 1월 돌연 사임하면서 후임자를 물색해왔다.

동국제약, 부광약품, 명문제약 등은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를 일찌감치 재선임한다. 동국제약은 22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오홍주 대표이사 사장의 재선임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오홍주 사장은 2010년부터 동국제약을 이끌어 왔다.

국내 제약사에서 ‘첫 여성 전문경영

인’ 부광약품의 유희원 대표이사 사장 역시 오는 15일 주총에서 재선임될 전망이다. 유희원 사장은 2015년 3월 공동대표에 선임됐고 지난해 초부터 단독 대표를 맡고 있다. 부광약품은 15일 주총 안건으로 유희원 사장과 박원태 부사장의 재선임을 각각 상정했다. 명문제약의 박춘식 대표이사 사장, GC녹십자셀의 이득주 대표이사 사장, GC녹십자랩셀 박대우 대표이사 사장도 재선임이 예상된다.

2008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장수 CEO로 꼽히는 일양약품의 김동연 사장 역시 연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양약품은 아직 정기 주총 일자와 의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경영인은 아니지만 오너 2세로 각각 회사를 이끄는 광동제약의 최성원 대표이사 부회장과 김영진 한독 대표이사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 안건이 의결될 전망이다. 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동생인 서정수 셀트리온제약 대표이사 사장의 재선임 안건도 주총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일하는 좋은 엄마를 꿈꿔요”

인터뷰  
이슬 맥도날드 전주 이후DT점 크루

일과 생활의 조화 가능한 업무환경  
유튜브 통해 아이들과 행복도 전해



이슬 맥도날드 전주 이후DT점 크루

“육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에만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아이들 문제로 출근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맥도날드는 희망하는 근무시간과 휴무일 조율을 통해 일과 생활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꼭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맥도날드 전주 이후DT점에서 근무하는 이슬씨는 20대 나이에 홀로 두 아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는 싱글맘인 동시에, 아이들과 부대끼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영상에 담아 수만명의 시청자를 사로잡은 유튜브 스타다.

이 씨는 육아와 경제활동을 혼자서 병행해야 하는 싱글맘이다. 아이들을 혼자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일해야 하는 직장은 여건상 근무하기 어려웠다.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맥도날드에는 원하는 근무시간을 매장과 협의 하에 조율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지원을 결심했다.

“일 끝나고 바로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해서 퇴근 시간에는 항상 초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맥도날드는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협의하며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진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 안심하고 더욱 열심히 일에 매진할 수 있었죠.” 이씨는 맥도날드만의 유연한 근무환경을 싱글맘으로서 최고의 근무조건으로 꼽았다.

이 씨는 아이들이 맥도날드 프렌치프라이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퇴근 후 함께 이씨가 근무하는 맥도날드 매장을 종종 방문한다고 한다. 한번은 어린이집 등교 이후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아이들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며 응원하게 됐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일을 하며 돈을 모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행도 다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 해주는데 그게 참 뿌듯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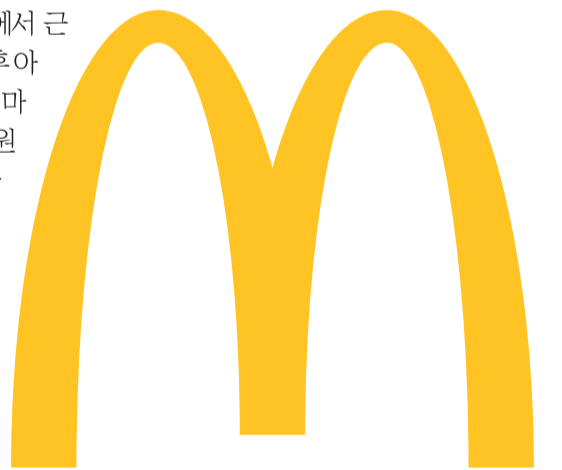
이 씨는 현재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혈혈단신

두 아이를 키우는 20대 여성의 삶을 솔직 담백하게 그려낸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4달 만에 구독자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어느 누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싱글맘으로서 ‘아이들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로 감동을 전한다.

이 씨는 “과거 이혼이라는 큰 산을 넘으며, 부정적인 생각과 끝없는 좌절감을 경험하면서 그 감정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버겁게 느껴졌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일상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브이로그(VLOG)’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매번 업로드할 영상 콘텐츠를 구상하며 즐거운 고민에 빠진 덕분에인지 종전의 우울함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구독자들의 응원 댓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어 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맥도날드를 발판삼아 제 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 방송댄스 자격증에 라인댄스 자격증 취득까지 즐거운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그는 “1월부터는 주에 두 시간 정도 방송댄스 수업을 지도하고 있고, 댄스 강사로 일하는 시간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다”며 “싱글맘이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더 큰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발판이 되어주는 맥도날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니코틴·타르 외 ‘담배 유해성분’ 알린다

유해성분 국민이 쉽게 확인해야  
필련·엑상형 전자담배 성분 측정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을 분석해 국민들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뱃갑에 표시된 니코틴, 타르 외에 함유된 성분들이 모두 드러날 예정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필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포함한 각종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부터 자체적인 담배 성분 분석법과 독성·의존성 평가법을 마련하고, 먼저 일반 필련 담배 120개 성분, 필련형 전자담배 200개 성분, 엑상형 전자담배 20개 성분을 측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필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첨가제 등도 분석대상에 포함해 분석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

만을 담뱃갑에 표시한다.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담배에 들어간 성분과 첨가물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담배 성분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담배 성분과 독성·의존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가족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해 2010년부터 담배회사들이 의무적으로 담배 성분과 600가지에 이르는 첨가물을 식품의약품(FDA)에 제출하고 보건부 장관이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가 추진되면 담배회사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약처

는 지난해 6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엠버), BAT코리아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 결과, 이들 필련형 전자담배에서는 일반 담배와 다른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 또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담배에서만 특이하게 검출되는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도 5개나 나왔다.

/이세경 기자

# 대웅제약, 지난해 매출 1兆 돌파... 최대 매출 경신

대웅제약이 2018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1조314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6일 밝혔다. 개별 기준 연간 실적 결과로는 매출 9435억원, 영업이익 308억원, 당기순이익 15억원을 기록한 경영실적을 잠정 공시했다. 특히 대웅제약의 2018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8.9%(개별 기준)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와 같은 매출성장이 병원처방약(ETC)과 일반의약품(OTC)의

지속 성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TC부문은 전년 6001억원 대비 12.3% 성장한 674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우루사, 나보타, 안플원 등 자체개발 제품의 지속적인 매출과 더불어 도입상품인 제미글로, 리시야나, 포시가의 판매수수료 매출 증가가 이어졌다. OTC부문은 전년 832억원 대비 10.8% 성장한 92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대표제품 우루사와 임팩타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반면, 수익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한해 대웅제약은 전년 대비 36.9% 급

감한 24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5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대웅제약은 “영업이익의 하락은 오송과 나보타 신공장 가동에 따른 감가상각비, 공장 인건비, 기타 초기운영비 증가와 연구개발비 증가,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투자 비용 증가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연구개발 비용은 2009년 434억원 대비 2017년 1143억원으로 2.6배 이상 확대됐다. 전체 매출액 대비 10% 수준이다.

/이세경 기자

# 어퓨, 비건 화장품 ‘맑은 솔삭 라인’ 출시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어퓨는 ‘맑은 솔삭 라인’ 6품목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어퓨 ‘맑은 솔삭 라인’은 스킨케어 3종, 클렌징 3종으로 출시됐으며 100% 비건(Vegane) 화장품이다. 내용물부터 포장재까지 동물성 원료와 동물 실험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미샤 측은 “기획부터 출시까지 2년 여의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프랑스의 비건 인증기관인 EVE(Expertise Vegane Europe)로부터 100% 비건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제품은 제주 소나무에서 채취한 ‘구주소나무췌산추출물’과 발아한 쌀에



어퓨 맑은 솔삭 라인. /에이블씨엔씨

서 얻어낸 ‘발아쌀복합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편안하게 진정시킨다. 사용한 원료는 모두 EWG 그린 등급으로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